

꿈 속에서 몇날 며칠 사랑을 나눴어도... 현실서는 40초

봉은사 선지식 초청법회 네번째 ... 혜국 스님(석종사 금봉선원장)

선원장 스님들을 모시고 명법문을 듣는 <봉은사 선지식초청일요법회>가 9월 18일, 법왕루에서 봉행됐다.

봉은사 선지식초청일요법회에서는 총주 석종사 금봉선원장 혜국 스님이 참나와 망상에 대해 법론했다.

혜국 스님은 “부처님께서 배푸신 가장 큰 은혜는 ‘천상천하 유아독존-우리 모두는 부처다’ 라는 사실을 일깨워 주신 것”이라며 “우리들의 현실을 살펴보면, 부처인 ‘참나’는 숨어있고 ‘망상’이라는 가짜가 주인노릇을 하고 있다”고 이날 모인 신도들에게 물질에 대한 욕망을 차분히 돌아볼 것을 당부했다.

한편, 이날 봉은사는 1700여 신도들이 법문을 듣기 위해 참가해 도량을 가득 메웠으며 대웅전과 법당이 마련된 법왕루 외에도 도량 마당에 명석을 깔거나 풀밭에서 자유로이 누워 법문을 청취했다. 다음은 혜국 스님의 법문 요약이다.

정리= 노덕현 기자

그대로 드러나는 것입니다. 내가 본 것이 아니라 찍힌 것을 다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시시각각 변하는 그 흐름, 즉, 참나를 보지 못하고 그 상을 보며 기억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망념, 망상입니다.

여러분들이 금생 한평생을 사는 것은 과거 수 억년 동안 내 본체의 잔상에 의한 것입니다. 이것을 부처님이란 대성인이 와서 ‘속지마라’ 하신 것입니다.

참나 참나의 변화에 빠지지 않고 본질을 보라는 것입니다. 본질을 보면 어떻게 됩니까. 너니 나니 분별이 없게 됩니다.

예로 들어봅시다. 구멍이 송송 뚫린 대나무 그릇이 하나 있습니다. 자기 몸뚱이 그릇, 대나무 그릇을 바다에 넣으면 속 들어갑니다. 다시 빼면 그릇이 속 빠집니다. 그릇을 몸, 바다를 참나라고 보면 그릇의 입장에서 보면 바닷물이 나오고 들어가는 것이 ‘생사’지만 바다입장에서 보면 간 것도 온 것도 없는 것입니다. 바다처럼 너, 나, 우리, 모든 것이 법신부처 한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부처될 가능성 여신 큰 은혜

부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우리들에게 베풀어 준 은혜가 한·두가지가 아니지만 그 중에서도 우리가 다 부처라고 하는, 우리가 부처임을 일깨워준 은혜는 참으로 큰 은혜라 할 수 있습니다.

육계 색계 무색계의 삼계 중 육계에서 가장 힘이 강한 것은 욕망입니다. 이 망념의 세계를 벗어날 수 있게 한 부처님의 은혜에 지극히 감사하며 법문을 시작합니다.

육계에서 가장 강한 욕망, 이 욕망을 망상이라고 하는데 망상의 근본 본질을 짚어 봅시다. 망상은 망념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흔히 기도를 하거나 참선을 하다보면 별별 망상이 다 떠오릅니다.

지금 와서 보면 망상은 누가 나에게 맡긴 것도 아니고 억지로 들어온 것도 아니고 내가 과거전생을 거치며 내 스스로 만든 것입니다. 내가 책임지고 이 망념을 보리심으로 바꾸는 것이 바로 중생제도입니다.

예로 들어봅시다. 옛그제 석종사에서 드라마 ‘계백’ 촬영이 있었습니다. 백제 스님들이 와서 석종사에 왔다 갔다하는데 정작 진짜 스님들은 방에 앉아서 짹짹 못하는 것입니다. 가짜 스님들이 절 앞마당에서 ‘제가 주지입니다’, ‘제가 선승 누구입니다’ 하는데 참으로 우스운 것입니다.

우리네 삶이 바로 이렇습니다. 망상 번뇌라고 하는 것들이 주인 노릇하고 참나는 이 안에 갇혀있는 것입니다.

드라마를 방송으로 봅니다. 이때 화면에 나오는 것은 필름 영사기에서 찍히는 것이

부처자리에선 광명이

본래 부처자리를 얘기해봅시다. 어제 밤이 깜깜했습니다. 안 깜깜했습니다. 깜깜했습니다. 그러면 태양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있었습니까.

태양 광명에는 어둠이 없지만 지구가 등을 돌려 반대쪽에 어둠이 생겼습니다.

부처님께서서 너희들 광명에는 일초도 어두움이 없다고 하셨습니다. 다만 탐진치번뇌 망상이라는 구름이 태양 광명을 가려 어둠이 있는 것이지 너희 자체에는 죄가 없다고 하셨습니다.

‘내가 무슨 죄가 있더라도 너희 감정의 세계이지 본디 세계에는 죄가 없다. 허공성이 네 마음이다 본래의 너다. 그 마음은 어떤 죄도 이겨내서 너는 부처를 이룬다’는 희망을 준 분은 부처님 밖에 안계십니다.

태양 광명이 있는 근본자리, 그 자리로 인도하려고 부처님을 비롯한 큰 스님 등 모든 스승들이 스스로 정말 깊이깊이 내 자리를 돌아봐서 망상에 꼬달리는 운명의 노예가 되지 말고 ‘나는 누구인가’를 참구하라 했습니다.

‘방안에 꿈꾸는 이가 있고, 밖에 꿈 깬 이가 있습니다. 꿈꾸는 이는 불을 만나고 불을 만나 허우적거리는데 깨고 나면 불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러면 깬 사람은 사람입니까, 아님입니까. 꾸는 사람은 사람입니까, 아님입니까. 모두가 사람입니다. 다만 한 사람은 꿈을 깬 뿐이요, 한 사람은 꿈을 꾸고 있을 뿐입니다.’

황벽 스님은 이를 일러 ‘깨닫고 난 다음



혜국 스님은... 혜국 스님은 1961년 13세에 해인사에서 일타 스님을 은사로 사미계를 받고 범어사에서 혜수 스님을 계사로 구족계를 받았다. 대승사, 봉암사, 칠불사 등에서 정진다. 또, 1969년 해인사에서 10만배 정진을 마친 뒤 판문대장경각에서 오른손 세손가락을 연비하기도 했다. 제주도 남국선원에서 무문관을 개설했으며 금봉선원을 창건해 선 수행 진작에 앞장서고 있다. 조계종 전국선원수좌회 대표를 지냈으며 현재 총주 석종사 금봉선원장과 남국선원장이다.

그릇을 바다에 넣고 꺼낸은 육신이 참나에 오고 감 같아 부처님 광명은 빈부 가리지 않아 지금 이자리 인연 살려 정진하자

지난 세월의 오랜 세월을 돌이켜 보면 허우적 댔던 허망한 세월 뿐이다’고 하셨습니다.

학자들은 긴 꿈이 40초라고 합니다. 꿈속에서는 몇날 며칠 맛있는거 먹고 사랑하는 사람과 손을 잡고 하는데 40초에 지나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번뇌망상으로 몇생동안 수행하지만 본래 자리에서는 한 순간이더라는 것입니다.

다시 돌아가 이 자리로 돌아가면 어떤 죄를 지었던 마음을 돌아보면 죄를 지어도 조금도 더러워지지 않음으로, 아무리 모지라고 부족해도 완전한 것입니다. 한 생각 증득하는 순간에서 자기 부처를 깨달을 뿐, 내가 나였을 뿐, 어떤 것도 보낼 것도 없습니다. 조금도 모지랄 것이 없는 완전한 부처인 것입니다.

부처님께서서는 아늑다라삼막삼보리에서 는 얻고 덮을 것이 없다. 그렇지 않으면

등부처님이 s나에게 수기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우리는 완전하기 때문에 더 불일 것이 없는 것입니다.

정말 희망적인 말씀입니다. 언제 이뤄도 부처를 이룰 것이니, 바로 지금 선지식들을 모셔다가 마음에 대한 즉심시불을 탁 두기만 하면 한번 듣는 것이 씨앗이 돼서 언제 부처가 되도 부처가 됩니다.

태양빛이 잘난 사람이라고 더 비취주고 아닌 사람 덜 비취준니까. 똑같이 비취준니다. 모든 것은 똑같은데 인간들이 불평등이라는 것은 욕망의 마음에서 보는 것이지 우주법계에서는 모든 것이 똑같습니다.

모든 시방법계가 다함께 평등해 너니 나니 없는 자리라는 것입니다. 다만 눈으로 보고 듣고 견문각지로 감정에 꼬달려 밝은 본체를 보지 못하는 것입니다.

아들들이 공부를 안하고 매일 컴퓨터만 하면 참 답답할 것입니다. 부처님도 어떻게 하면 우리들을 고통에서 벗어나게 하려고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죽어라고 죽어라고 몸뚱이 따르는데도 따라가면 끝이 없습니다.

정진 또 정진

황벽 스님은 잠깐이라도 내일 미루지 않고 그 공부 하겠다고 하셨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유언을 하지 못하고 죽은 이에게

는 오늘 하루가 얼마나 소중한 일입니까. 마음 농사를 짓는 일은 정말 미뤄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지금 당장이라도 무심하기

하면 부디 나가 밭에 밭타 모든 것이 두루 어둠이 없게 됩니다. 마음마음 어두운 마음에서는 새까만 기운이 나오고, 기도나 참선에서는 맑은 기운이 나옵니다. 한번 미운 마음 내거나 원망하는 마음을 낼 때는 도둑 망상이 와 우리 친구 생긴다. 춤을 추는 시간이고요, 마음마음 부처는 아직도 정진 못하려 나고 죽고 나고 죽고 뭇백반을 해야 하겠는가. 전생 수백 번 부도 만나 자식 낳고 번뇌 번뇌하더니 또 이러는가.

우리 마음에서 칼 같은 것이 나올 때 관세음보살을 부릅니다. 아니면 지장보살도 좋고 아니면 혜국 보살도 좋습니다. 이름이 따로 나온 이유가 있습니다. 일념이면 석가 모니불 하나면 되는데 따로인 이유는 그때 그때 다르기 때문입니다. 아무튼 자기 자신을 바라보며 염불을 한다던지 법당에서 절 하던지 참선하는 자세로 ‘이무엇이고’, ‘나는 누구인가’를 참구하는 것입니다.

무심을 꼭 알고 가야합니다. 무슨 생각을 딱 내면 우리 안에서 파장이 생겨 기운이 나는데, 일념은 없어지고 다만 모를뿐입니다. 왜 ‘똥 앞에 잣나무’라 했을까. 왜 ‘관세음보살’을 부를까. 다만 모를 뿐인 그 속

으로 속 들어가면 ‘모를 뿐’이 백지처럼 머리에 짝 펼쳐지는데 그것이 머리부터 발끝까지 차면 삼매라고 합니다. 백척간두 진일보에서 백척간두라 이릅니다.

우리 인간은 인간이 살면서 가장 큰 슬픔은 인간생에서 정말 중요한 일이 무엇인가는 늦게 안다는 사실입니다.

‘아! 내가 결국 빈손으로 가는구나. 정말 마음뒹아 가겠다고 울면서 울면서 태어나 놓고 내 몸뚱이 하자는대로 하는구나’

아들딸한테 잘해주면 아들딸이 그걸보고 부모에게 잘합니까. 그게 아니라 본게 그거라 자기 아들딸한테 잘합니까.

‘내가 이 세상 온 목적이 내 마음 닦고 가겠다. 밧검등안 없던 인연 천만 대천 법으로 가르쳐준 부처님, 봉은사가 지적에 있고, 이런 자리가 마련돼있구나’ 느껴야 합니다. 여러분은 영가 후보생입니다. 시간은 금방 갑니다. 13살에 절에 들어왔는데 어느새 52년이 지났습니다. 13살에 절에 들어왔을 때는 비구니 스님들이 날 보며 야구 귀여워 동자 스님했는데 이제는 환갑 다 지나고 늙다리라 됐습니다.

내 몸뚱이도 내 맘대로 못하는데 아들딸 왜 마음대로 해야 하는가. 남편, 부인 마음대로 하려합니까. 아들딸 마음대로 하려하지 말고 내 마음을 바다처럼 넓혀버리십시오.

모든 강물이 바다에 가면 한 바다가 되니 바다가 되면 무심이라 하고 무심이 되려면 노력하고 노력하고 노력해서 마음 닦는 것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번뇌 망상을 화두로

무심이 되려면 번뇌망상을 없애는 것이 아니라 번뇌망상을 기도로 만들고 화두로 만드는 것입니다. 루이비통 백이 생겨나면 이를 화두로 만들어야 무념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딱 앓는 것입니다. 업장이 바로 광명이 되는 시간입니다.

황벽 스님의 스승인 백장 스님의 말씀을 보면 ‘태어나도 본래 태어난 적이 없고, 죽어도 본신이 죽은바가 없다. 태어나고 죽은 바는 본래 꿈속에서 태어나니 죽으니 말하는 것이니 생명을 떠난 실상은 항상 여여하다. 신령스런 광명이 드러나 육근육신이 홀연히 드러났구나. 본체에서는 참되고 영원함이 드러나 모든 인연에 구애됨이 없음이라. 참된 성품은 본래 물들지 않아 본래로 원만 구족하니 다만 번뇌망상 허망한 생각만 여의라’ 하셨습니다.

봉사하는 사람은 봉사, 지혜주는 사람은 지혜만 닦는다는데 양변을 여의고 봉사 속에 지혜를 닦고 지혜 속에 봉사를 닦는 불자님들이 되길 바랍니다. 마음의 소가 어디로 가고 있는가 항상 돌아보는 불자가 됩시다.

大관음사 출가학교(3주간) 모집(제7기)

출가자의 모든 것을 체험.(염불, 참선, 경전공부 등)

- 무문관 7일 수행함.(삭발함)
- 신체 건강한 남자, 65세 이하
- 10월 4일(화) ~ 10월 24일(월) - 3주간
- 입 재 : 10월 4일(화) 오후2시 대구큰절
- 동참금 : 50만원
- 감포도량(95%)과 대구큰절(5%)에서 수행
- 우학스님 및 대중스님 지도
- 문의 : 010-9562-8228

대한불교 조계종 한국불교대학 大관음사

Health Food Prescription Counselor

보건식품처방사

보건식품처방사란? 국가에서 인정한 식품 원재료를 활용하여 보건식품을 개발하고 개인의 체질에 따라 식품을 맞춤 처방하는 전문가로서 보건식품처방원을 개원할 수 있음

보건복지가족부공익법인 대한보건의료진흥회 (자격검정)

자 격 과 정	교육 기간
인체생리학(인체해부학), 자연치유의학, 식품영양보충학, 식의학(동양의학, 양생학, 변증), 중탕이론 및 실습(법제론), 보건식품처방론(변증학, 방제학), 약용식품학, 총 7개 과목 ※ 특강 : 자연건강법(자세교정, 기공, 양자파동), 식품위생법규, 약초기행실습, 보건식품 효소발효학	14주 과정 토요일 반

접 수 처 서울시 서대문구 총정로2가 130-1 신한은행빌딩 5층

문 의 02)3147-2020

교육일정과 기타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 참고바랍니다.

www.kile.or.kr

지 부 교 육 원

창 원 055-543-6155 호 남 063-288-5623 전북익산 063-854-1060 부 산 051-441-0111
울 산 052-260-1037 충청북부 043-263-9966 대 구 053-566-1116 해 운 대 051-757-9990
강원서부 033-252-3682 경 남 055-932-5877

교육과학기술부허가공익법인/한국평생교육기구 한국보건교육원 KOREA EDUCATION CENTER FOR HEALTH